

2023 한-인니 금융협력포럼

축 사

2023. 9. 4.(월) 10:00

Four Seasons Hotel, Ballroom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어 : 슬라맛 빠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지난 '19년 9월에 이어
다시 한 번 자카르타에서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양국의 금융기관 및 금융인프라 기관들이 모여,
두 국가의 금융협력방안과
지속 가능한 금융환경 등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마헨드라 시레가(Mahendra Sirega) OJK 청장님과
해외금융협력협의회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양국의 금융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1968년 인도네시아 원목개발사업에 투자한
한국남방개발(코데코)은
한국 해외투자 1호 기업이자,
인도네시아로서도 처음 받아 들인
외국인 투자 기업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973년 한국과 수교한 이래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우호관계에 힘입어
'22년 양국 간 교역량은 약 26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서로 방문하는 인원은
연간 23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 한국→인니 : 약 12만명, 인니→한국 : 약 10만명 ('22년)

'23년 1월 한-인니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양국의 긴밀한 협력은 여러 분야 중에서도
금융 분야에서 두드러집니다.

한국 정부는 한-아세안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를
2022년 4월 자카르타에 설립하였습니다.

금융협력센터는 아세안 금융협력 심화 플랫폼으로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의
다양한 금융분야에 대한 지식공유,
금융인프라 수요 맞춤형 협력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신용보증 분야 제도공유, ASEAN 금융지도자 양성 사업 등

한국 금융회사들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업 등
금융업 쏠 분야에 걸쳐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 진출해 있습니다.

* '23년 3월 기준 : 총 27개사, 32개 해외점포 운영

특히 미래에셋증권 인도네시아 법인의 경우
최근 3년간 현지 주식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는 등
많은 금융회사들이 현지 금융시장에 기여하며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한국의 핀테크 기업들 역시
인도네시아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활발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금융감독청 등 기관에서도
한국의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등으로
초청연수, OJT(현장연수)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한국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대면 초청연수* 등이 잠시 주춤하였지만,
다시금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 금감원 '21년 연수 온라인 진행

이처럼 양국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국 금융의 노하우와 경험이 인도네시아와 공유됨으로써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높은 성장가능성과 시장성,
한국의 발달된 금융과 IT기술이 만나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 정부는 양국의 금융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민간 금융회사들의 상호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진출해있는
한국 금융회사들이 인도네시아의
자본시장 발전, 예금자보호, 신용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지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금융회사들의 현지 영업과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금융수요에
양국이 함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9년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금융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한국이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금융혁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인도네시아와 공유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의 디지털화 수요에 맞추어
한국 금융인프라 기관들이
컨설팅, 시스템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높은 인터넷 및 모바일 보급률*과
정부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기반으로
핀테크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보급률 78%, 스마트폰 보급률 68% ('22년)

금융위원회는
인도네시아와의 핀테크 협력 역시 더욱 강화하여
양국의 금융혁신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융협력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해외금융협력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개최한 해금협은
한국의 공공·민간 금융기관 및
금융협회로 구성된 협의체로써,
오늘과 같은 국제금융협력포럼 개최,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등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해금협의 인력과 재원을 보충하고
금융분야별·지역별로 사업을 세분화하여,
인도네시아 등 상대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한국과 협력국이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는 이슈와
협력 방안도 심도있게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해금협의 협력국과의 가교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21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께서
서울에서 참석하신 금융협력 세미나와 같은
네트워킹 프로그램,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속담 중에

Duduk seorang bersempit-sempit,

두둑 스오랑 버르슴핏-슴핏

Duduk bersama berlapang-lapang.

두둑 버르사마 버르라뽕-라뽕

이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혼자서는 좁게 생각하지만, 함께하면 더 넓게 생각한다.

양국의 금융 협력은

더 넓게 생각하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두의 노력이 모여

더욱 성공적인 금융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어 : 프리마 까시)